



대구세계육상선수권 결산

김덕현 첫 결선 진출 '희망' 봤다

(광주시청)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9일간의 일정의 무대가 마무리 됐다. 종별 세대교체의 거센 물결 속에 이번이 속출했던 이번 대회는 4일 대회 마지막 메달이 걸려있던 남자 400m 계주에서 나온 자메이카의 세계 신기록으로 화려한 막을 내렸다.

안방에서 친지를 치른 한국은 세계의 높은 벽에 막혀 '10-10'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끌려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결선진출의 꿈을 이룬 멀리뛰기 김덕현과 한국신기록을 험직한 남자 400m 계주팀 등은 아쉬움 속에서도 희망을 꽂아뒀다.

男 400m 계주 한국신기록도 값진 선물

'10개 종목 10강' 목표 실패 세계壁 실감

◇'표지 모델의 저주' 이번의 대구=이번 대회에서는 '표지 모델의 저주'라는 징크스가 생겼다. 대구 세계육상조직위원회가 매일 발간한 안내 책자 '데일리 프로그램' 표지를 장식했던 우승 후보들 이 이번의 희생양이 되면서 생긴 징크스였다.

대회 첫날 남자 장대높이뛰기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스티브 후커(호주)의 예선 탈락을 시작으로 '미녀새' 이신바에바가 6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남자 110m 허들의 디아룬 로블레스(루마)는 1위로 결승선을 들어왔지만 '황색단판' 류상(중국)의 팔을 잡으면서 실격을 당했다.

'번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는 100m 결승에서 부정출발 실격으로 고개를 숙였다. 여자 400m 우승후보였던 영국의 크리스틴 오루구도 부정출발로 결승 무대 밟지 못한 채 경기를 떠나야 했다.

볼트의 100m 2연패 달성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3관왕은 탄생하지 않았지만 볼트의 훈련파트너였던 블레이크가 2관왕

에 오르며 이번 속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백인 볼트'로 불리는 프랑스의 크리스토프 르메트르는 자신의 첫 메이저대회에서 400m 계주 은메달, 200m 동메달, 100m 4위를 차지했다.

◇세계 신기록 1개·대회 신기록 2개, 기록 흥작=대구스타디움은 '마법의 양탄자'로 불리는 몬도트랙을 깔고 풍성한 기록잔치를 기대했지만 세계신기록 1개·대회신기록 2개가 탄생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세계신기록은 대회 마지막날 볼트의 마지막 역주가 펼쳐진 400m 계주(37초04)에서 겨우 수립됐다.

대회신기록도 2개에 그쳤다. 여자 창던지기에서 마리아 아바쿠모바(러시아)가 71m99로 기준 기록(71m70)을 29cm 늘렸다.

'표지모델의 저주'를 딛고 여자 100m 허들 금메달을 가져간 샤리 피어슨(호주)도 12초28의 기록으로 24년 만에 대회 기록(12초34)을 갈아치웠다.

◇아쉬움 속에 빛난 얼굴들=한국은 안

방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10개 종목에서 톱10 선수를 배출하겠다는 '10-10' 목표를 걸고 아심찬 도전에 나섰지만 세계의 벽은 높았다.

그러나 값진 4개의 한국신기록이 세워졌다.

남자 10종 경기에 출전한 김건우는 참가한 30명의 선수 중 8명이 중도에 경기를 포기하는 가운데에도 레이스를 끌까지 마치며 7860점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세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17위에 머물렀지만 한국팬들에게 10종 경기에 대해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두 번째 한국신기록은 남자 1600m 계주팀(3분04초05)이 세웠다. 박봉고·임찬호·이준·성혁재로 구성된 대표팀은 예선 A조에서 3분04초05를 기록해 13년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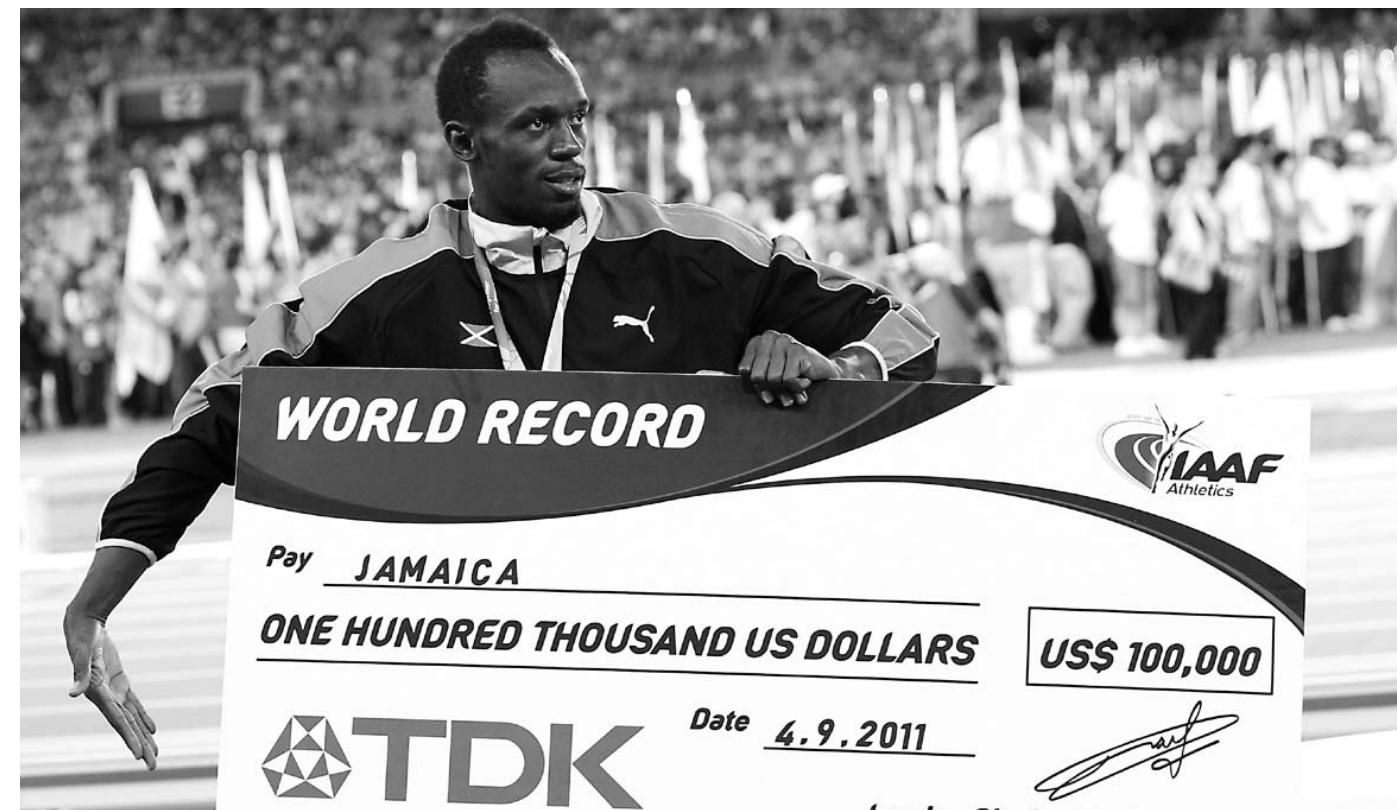
박철성은 남자 경보 50km 결승에서 3시간47분13초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지난 4월 자신이 작성했던 한국기록(3시간50분11초)을 3분가량 앞당겼다.

대회 마지막날 여호수아·조규원·김국영·임희님이 힘을 맞춘 남자 400m 계주에서도 한국신기록이 탄생했다. 남자 계주팀은 예선에서 조 5위에 그쳤지만 38초94를 쳐어 종전 기록을 0.1초 앞당기며 감격의 환호 속에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또 남자 경보 20km의 김현섭은 6위에 오르며 한국 선수 중 처음으로 톱 10의 주인공이 됐고, 멀리뛰기의 김덕현은 8m2를 날며 결승 티켓을 따니 2007년 오사카 대회 세단뛰기 결승 진출 이후 두 종목 결승선출의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김덕현은 세단뛰기 예선에서 밭복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아쉽게 결승 무대에는 서지 못했다.

/대구=한신협공동취재단



"세계신, 상금도 받았어요" 지난 4일 밤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400m 계주 결승에서 우승한 자메이카 계주팀 우사인 볼트가 상금을 들고 포즈를 하고 있다. 네스티 카터-마이클 프赖어-요한 블레이크-볼트 순으로 달린 자메이카 대표팀은 37초04의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연합뉴스

볼트가 쓴 '9일간의 드라마'...대구는 즐거웠다

100m 실격·200m 우승·400m 계주 세계新

종별별로 1인자의 '불갈이'가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던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조미의 관심을 끌었던 선수는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5·자메이카)였다.

최대 이번의 희생양이 됐던 볼트는 그러나 3일 열린 200m 결승에서는 19초40이라는 역대 네 번째로 좋은 기록으로 마침내 금메달을 획득하고 여섯 만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곧이어 대회 최종일, 마지막 레이스로 벌어진 남자 400m 계주에서 마지막 4번 주자로 나서 폭풍과 같은 질주로 37초04라는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화끈하게 대회를 마무리했다.

전연전승을 거두던 때와 달리 극적인 드라마를 쓰며 명예를 회복한 볼트는 어느 때보다 격하고 화끈하게 감정을 표출하며 우승에 대한 기쁨을 만끽했다. 경쟁자를 암도하는 기량과 화끈한 쇼박스를 앞세워 트랙에서 카리스마를 뽐어낸 볼트의 일거수일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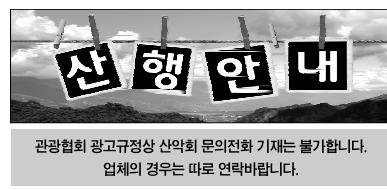
족에 팬들은 울고 웃었다.

볼트의 원맨쇼와 마지막에 탄생한 세계신기록 덕분에 이번 세계대회는 어느 때보다 드라마틱했다.

볼트는 "금메달을 두 개나 따서 기쁘다"며 "올 시즌에는 초반에 (부상 때문에) 힘들었는데 올립픽이 있는 내년 시즌은 처음부터 잘하고 싶다. 올립픽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설이 되는 데 얼마나 가까워졌느냐는 질문에는 "대구 대회는 내가 전설이 되는 데 좋은 밀거울이 된 것 같다"며 실격과 우승, 세계기록 수립으로 이어진 '드라마'를 되돌아봤다.

볼트는 또 "나는 그냥 느끼는 대로 그 순간을 즐기고 싶다. 사람마다 다른 그 낭 즐기고 팬들을 즐겁게 하고 싶다. 한국 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나에게 끝까지 힘이 돼줬다. 고맙다"고 한국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



경상협회 광고규장상 산행안내 문의전화 기재는 불가합니다. 입장비는 따로 연번비입니다.

9월8일(목)

▲e-조은산악회 경남 함양 영취산~여운봉

(부전계곡) 9월 8일(목) 7시 50분 업주체육

관정문 출발 (경유 : 문예후문 8시20분) *

다음카페 : e-조은산악회

▲광주가고파산악회 전북 진안군 덕태산

1155m 선각산142m 백운계곡 9월8일(목)

6시 운천자수지역 현대산부인과 앞 출발

(백운로타리/롯데백화점/밀바우시장) 능형

/ 7시 문예회관후문경유) *다음카페 : 광

주가고파산악회

T.011-605-5034, 011-9612-5191

▲광주토요산악회 문경 조령산 종주 9월8일

(목) 6시 업주체육관 출발(광주역, 비엔날

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 http://cafe.

daum.net/gwangjutoyo

T.010-3608-4267, 010-7620-0708

9월10일(토)

▲광주토요산악회 담양 불태산 9월10일

(토) 8시30분 업주체육관 출발(광주역, 비

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 http://

cafe.daum.net/gwangjutoyo

T.010-3608-4267, 010-7620-0708

9월13일(화)

9월15일(목) 시 다음까페 광주금당 산악회

9월16일(금) T.011-629-2678

(목) 7시 50분 업주체육관 정문 출발(경

유 : 문예후문 8시20분) *다음카페 : e-조

▲빛고을무지개산악회 가덕도 연대봉 산행

후 봉하마을 9월18일(일) 7시 지하철학동

9월18일(일) 중심사 입구역(소공원) 3번출구 출발, 20분

일(목) 백운동 동아병원앞 7:20, 현대시내

광주역, 30분 문예회관후문, 40분 동광주역

스 7:30, 돌고개 7:40, 광주역 8:00, 문

딩프리자) *다음카페 : 빛고을무지개산악회

회예회관8: 10 *다음카페 : 빛고을목요

회 T.011-620-2002

산악회 T.010-5441-8845, 010-3421-7807, 011-

011-605-5311

9월17일(토) 일(일) 6시30분 한일병원, 33분 산수회교,

36분 광주교육대, 40분 광주역, 50분 문예회

관, 7시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

청운산악회 남원 고리봉 암릉계곡 산

행 9월13일(화) 8시 업주체육관주차장 / 도 월드 섬산행 대부산 생태비벌길 (출발)

시10분 교원공제 / 8시20분 무등경기장 후 진월동(구) 해태마트앞 5시20분, 업주체육

문 / 8시30분 문예회관후문) *다음카페 :

관주차장 5시30분 한국병원앞 5시40분, 문

화예회관후문 5시50분 비엔날레주차장 6

9월20일(화) 회예회관후문 5시50분 비엔날레주차장 6

9월21일(수) 회예회관8: 10 *다음카페 : 광주금당 산악회

9월22일(목) 회예회관9: 10 *다음카페 : 광주금당 산악회

9월23일(금) 회예회관10: 10 *다음카페 : 광주금당 산악회

9월24일(토) 회예회관11: 10 *다음카페 : 광주금당 산악회

9월25일(일) 회예회관12: 10 *다음카페 : 광주금당 산악회

9월26일(월) 회예회관13: 10 *다음카페 : 광주금당 산악회

9월27일(화) 회예회관14: 10 *다음카페 : 광주금당 산악회

9월28일(수) 회예회관15: 10 *다음카페 : 광주금당 산악회

9월29일(목) 회예회관16: 10 *다음카페 : 광주금당 산악회

9월30일(금) 회예회관17: 10 *다음카페 : 광주금당 산악회

9월31일(토) 회예회관18: 10 *다음카페 : 광주금당 산악회

9월1일(일) 회예회관19: 10 *다음카페 : 광주금당 산악회

9월2일(화) 회예회관20: 10 *다음카페 : 광주금당 산악회

9월3일(수) 회예회관21: 10 *다음카페 : 광주금당 산악회

9월4일(목) 회예회관22: 10 *다음카페 : 광주금당 산악회

9월5일(금) 회예회관23: 10 *